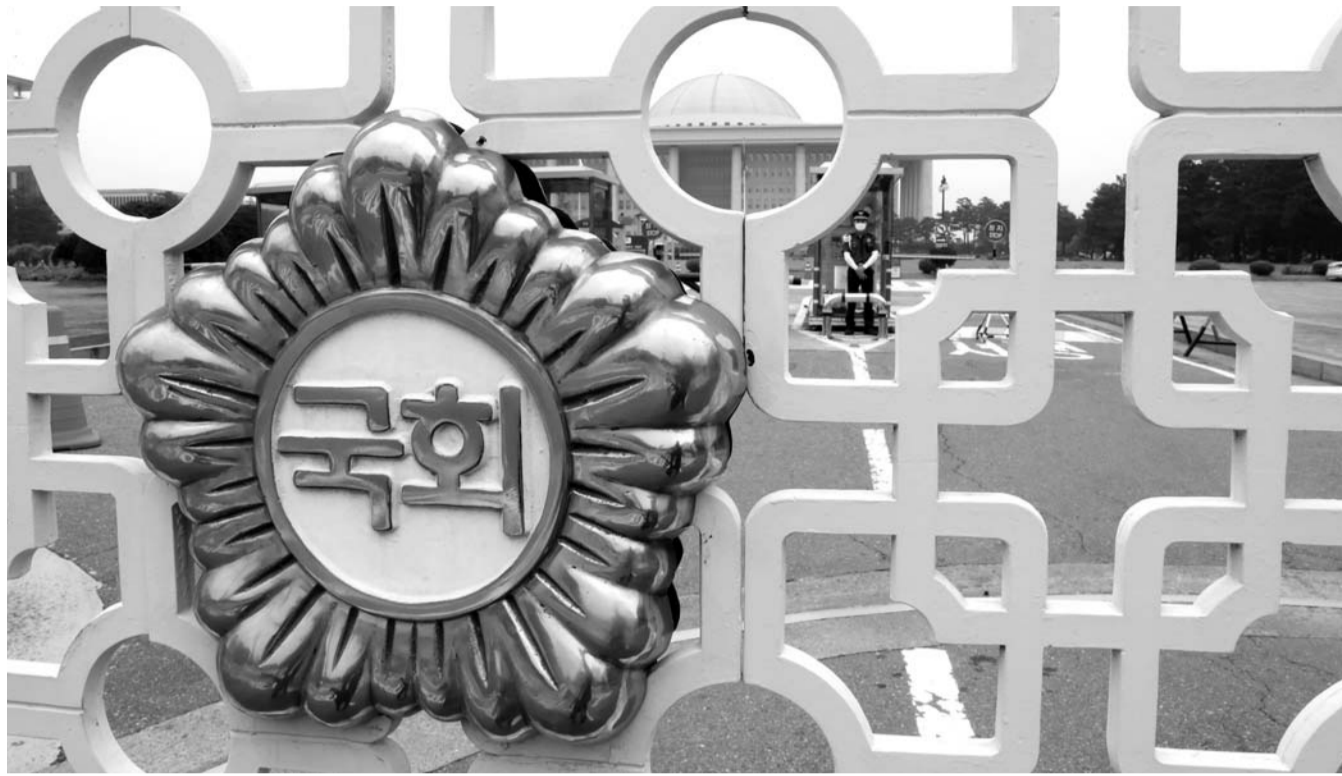


# 민생 외면 '민폐 국회' 언제까지...

여야 현충일 접촉 또 빈손  
민주 "조건 없는 복귀" 호소  
한국당 "3당 회동" 고집  
대통령 순방전 회담 무산될 듯



정상화 협상의 진전없이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국회 정문 너머에 국회 본관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묘에 선 여야의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여권이 상정한 정상화 협상의 데드라인인 6월 첫 주말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여야가 접점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6월 국회 역시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직후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전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형식을 둘러싼 대립만 깊어지며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여야는 이날도 6월 국회 및 청와대 회동을 놓고 날 선 공중전만 이어갔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취임 100일을 정면으로 겨냥,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단독 국회 소집을 위한 정치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이혜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취임 100일을 언급 "지금이라도 황 대표는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천명해 100일 중 의리 있는 하루라도 만들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

# 문대통령 "광복군, 국군 창설 뿌리"

현충일 추념사...약산 김원봉 언급 좌우합작 역량 집결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일본 강점기 조선의용대를 이끈 항일 무장독립투쟁가 약산 김원봉(1898~1958년)을 언급하며 "임시정부가 좌우합작을 이뤄 광복군을 창설했다",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창설의 뿌리가 됐다" 등의 평가를 했다. 좌우 이념을 극복한 애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김원봉이 해방 이후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를 계기로 김원봉을 둘러싼 여야의 이념논쟁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총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다"며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 문희상 "무슨 이런 국회가 다 있나"

"국회 정쟁에만 몰두...노태우 정권때도 안전 90% 의결"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전을 거듭하는 최근의 국회의 모습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난파선에서 서로 선장을 하겠다고 싸우는 격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대장하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러시아·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공식방문 중 이던 3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힘을 합쳐 '대한민국호(號)'를 건설하게 만든 뒤 대장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거꾸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 "당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를 생각하고 협조해 모두 정권을 뒤집었다. 야당이 집권하려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며 "지금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망하기만을 바란다. 최소한 외교와 안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야당이 긴 안목으로 협조하고 '야당답게' 하면 지지율도 올라간다. 지금 야당의 지지를 상승은 결집력만 있고 확장력이 부족하다"라며 "지도자가 멀리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와 대통령 후보 되는 것이 급해 자기만 생각하면 당리당략, 사리사욕 문제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안전의 90%를 의결했다"라며 "지금은 30%도 안 된다. 무슨 이런 국회가 다 있느냐"라고 말했다.

# 호국선열 추모 한마음...대북 해법엔 시각차

여야, 현충일 논평  
민주 "평화 기반 통일 대한민국"  
한국당 "외교파탄에 고립무원"

여야는 6일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한복 소리로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면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과 대북 해법 등을 놓고는 시각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식 대변인은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날"이라며 "특히 올해 추념식에는 유해가 해외에 안장돼 있다가 최근 국내로 봉환된 전사자를 포함한 6·25 전사자 유가족들도 함께했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의 의무는 없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고 보살핌을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애국과 보훈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강하고 튼튼한 국가를 만드는 데 뜻을 모으자"고 논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었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해 잠으로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 "평화당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지**

- 광산구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11만㎡ 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산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감정가 50% 매11억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점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점 매 4억3천

**상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안집재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점 330㎡ 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 1만㎡ 사찰건물최고 납골당 4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텔4층, 2층식당 펜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외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울리모델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중4층 엘리베이터 방2 거실큰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당전화 ☎ 010-2314-8567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교환**

- 순천 낙안 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투자·매도·교환**

-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대지 641㎡(주택있음)별장형 단독 좋은 1억5백
- 서구 마곡동 대지 384㎡ 투자에도 좋은 5억8천
- 광산구 분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총장로 47㎡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3563㎡ 펜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펜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펜션좋은 7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